

연중 제4주일(사회복지주일)

제 1독서 : 스바 2,3 ; 3,12-13

제 2독서 : 1고린 1,26-31

복 음 : 마태 5,1-12a

술 정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마태 5,12)

강
론

교회의 사명과 사회복지 활동



오성기 신부 / 사회복지회장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시작하여 하느님 나라를 가난한 이들이 우선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으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삶의 최고 원리를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시면서 구체적인 이웃 사랑의 대상을 말씀하셨습니다(루가 10,25-37). 또한 소외받고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시 하시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최후심판 때의 기준으로 삼으시고(마태 25,31-46),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사랑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말씀과 행적을 살펴보면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에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부분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진정한 하느님의 교회로 인정받는 기준은 가난한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사명을 지닌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무엇보다도 교회가 제도 속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노력 대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회의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려고 교회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하며, 교회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이나 노력이나 비용을 과감하게 바깥 어두운 구석의 세상으로 돌려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강요하고, 스스로 밖으로 나가려는 노력을 계울리 하는 한 진정한 복음을 구현하는 열려진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를 자각하고 일찍이 시작한 교회의 복지활동은 사회사목의 일환으로 교회의 사명인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헌신하는 필요한 영역이며, 이는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사랑하는 구체화된 복음화의 노력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는 복지활동을 본당 안에서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구체적인 실천의 하나로 본당신부와 사회복지분과가 앞장서고 모든 신자가 봉사의 주체가 되어 교회의 복지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본당마다 소규모 공동체를 여럿 만들던가, 특성있는 복지시설이나 사업을 하나 씩만 해 나간다면 교회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소공동체적 복지활동으로 본당신자들은 복음화의 의식교육의 장이 될 것이며, 그 지역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들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이며, 이는 공동체의 복음화를 위한 지름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세상의 복음화에 있다면, 복지활동이 바로 사목의 시작이며 전체임을 알아 더욱 세상을 위한 복지활동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 따로, 신앙 따로

박 대 길(벨라도)

‘표리부동(表裏不同)’이란 결과 속이 갖지 않다는 뜻을 가진 말이다. 사전에서는 “마음이 음흉맞아서 결과 속이 다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음흉’이라는 말은 “성질이 검고 내흉스럽고 불량하다”는 뜻을 가진다. 따라서 표리부동이란 페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의도적으로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는 말이 있다. 작심삼일을 사전에서 찾으면 “일시적인 느낌으로 먹은 마음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정리되어 있다. 처음에는 굳은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마음먹은 것을 지켜 나가기로 했는데, 의지가 부족해서 결심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표리부동’과 ‘작심삼일’이라는 말에서 차이를 찾는다면, 표리부동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거짓 말이나 행동을 한 것이고, 작심삼일은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의 의지가 약해서 결심이 꺾여졌다는 것이다. 반면 서로 공통되는 점을 찾는다면, 자신에게만 극한되지 않고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때 그것은 거짓말이나 거짓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자신은 물론 남에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십계명에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다. 이 계명은 인간 세상에는 거짓이 난무하고, 그 정도가 심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오죽이나 거짓이 심했으면, 십계명에 들어 있겠는가? 그런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이 생활화되어 있다면, 그것은 큰 일이다.

자신은 아주 깨끗한 사람, 양심에 반하는 거짓된 행동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스스로 공언하면서 현란한 미사어구를 동원하여 치장을 하는 사람도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균질’이니 ‘무당파’니 하면서 마치 다른 정치인들은 다 더럽혀졌어도 자신만은 깨끗하다고 외쳐대다, 선거에서 패배하고나서 ‘깨끗함’을 자부하는 사람이, ‘있는 당’에 들어간 사람도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또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특히 사회와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다수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는 말처럼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러기에 거짓이 판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직하게 했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고, 그것이 비극으로 연결될 때 거짓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 조심하고 지켜야 할 것은 거짓이 아니라 정직이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라도 거짓된 말이나 거짓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는 믿음의 생활은 정직해야 한다. 그리고 ‘생활 따로, 신앙 따로’라는 이분법이 더 이상 자리를 잡아서는 안되겠다.

술정이 산책



사제·부제 서품식



일시 : 96년 2월 2일(금) 오전 10시
 장소 : 천주교 전주교구 중앙 성당
 주례 : 이병호(빈첸시오) 주교



김 훈(안토니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요한 11,35)

예수께서는 죽은 라자로의 가족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듯이 우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과 괴로움을 당신 것으로 받아 안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느님과 여러분의 도움으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합니다.

첫미사 : 2월4일(일) 오전 10시, 화산동 천주교회



오정선(요셉)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필립 1,21)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부터 그 분만이 참된 진리 이심을 깨달았고, 나의 길을 밝혀 주시는 빛이시고 모범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가난한 사제로서 살고자 합니다.

첫미사 : 2월3일(토) 오전 10시 30분
 주현동 천주교회



이상용(야고보)

“나를 따라 오너라”(마태 4,19)

예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를 따라 오너라”고 부르시면 “예, 여기 있습니다”하고 응답하는 자세로 살고자 합니다.

첫미사 : 2월3일(토) 오전 11시, 서신동 천주교회

요십이 (1170)
 김병오



매일 성서 묵상 잡지
야곱의 우물(월간지)

『야곱의 우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물과 같은 기쁨에로 당신을 초대할 것입니다.

- 가격 : 1,000원 · 1년구독 : 10,000원
- 연락처 : 성바오로 서원(☎ 252-3398)

호성동 성당 상량바자회

성전 상량 기념 바자회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누리는 만남의 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96. 4. 18(목)~21(일)
- 장소 : 호성동 성당

신자 보급용 가방판매

가죽제품, 공장직송, 염가판매

- 남자용 : 20,000원
 (서울 블론디 가방)
- 여자용 : 35,000원
 (서울 아리아콜렉션)
- 천주교 전주교구 장애인협의회
 문의 : 사회복지회 84-5290

전주 성심 개교 50주년 행사를 알려 드립니다

1. 일시 : 10월3일 2. 행사일정 : 10월2일 - 기념축제. 10월3일 - 기념식
3. 부탁의 말씀 : ① 성심 동문들은 본 행사를 위해 다음 구좌로 삼만원 이상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50년사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 ※ 전북은행 503-21-0044322 김숙정 ② 동문과 회직교사님들은 명부작성을 위한 자료(출입년도, 학년, 주소, 전화번호, 현직)를 보내주십시오.
4. 보내실 곳 :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서무과(560-070 전주시 완산구 교동 280 ☎ 0652-84-3244)로 3월 31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전주성심여자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 김영희

남자직원모집

- 자격 : 고졸이상 병역의무 멀한 자(면제자) 부기, 주산 2급이상 자격취득 또는 경리직 2년이상 근무한 자
- * 천주교 신자 우대함 · 구비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1통
- 제출마감 : 2월 4일까지 · 문의 : 천주교 호성신용조합 ☎ 241-1750

제23차 정기총회 소집공고

1. 일시 : 2월7일(수) 오후 1시30분
2. 장소 : 전북예술회관 4층(공연장)
3. 부의안건 : 95년도 사업실적보고 및 결산
 (안) 승인의건 외
 1996. 1. 28
 전주대전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김병오

사랑을 나눕시다

사랑의 다리란?

사랑의 다리는 전주교구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회사업을 지원하는 후원단체입니다.

그동안 회원들의 정성으로 그늘 속에 사는 형제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주었지만 아직도 우리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에는 특별히 '사랑의 다리 회원 배가운동'을 펴고자 합니다. 전주교구의 모든 신자들이 '사랑의 다리'에 관심을 갖고 보다 많은 어려운 형제들에게 나눔의 혜택이 주어지도록 합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사랑이 모아진다면, 이 지역 안에 소외받고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형제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게 됩니다.

사랑의 다리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사업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체장애인 후원

- 의지할 데 없는 지체장애인들의 집(무지개가족의 집) - 전북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620번지
- 재가장애인 활동

◆ 작은자매의 집

- 정신지체, 중복장애 아동들의 생활 공동체 - 이리시 월성동 산 180

◆ 영보은혜의 집

- 나환자 양로원 - 익산군 함열읍 흘산리 208

◆ 영세민가정 복지 사업

- 빈곤 결손가정
- 홀로 사는 가난한 노인
- 팔복동 공단지역의 영세민 아동들을 위한 나누리공부방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30-5

전북 사진 학원

- 취미반 · 영업반
- 대학진학반
- 최용부(바오로)
이수현(수산나)
- 전주시 중앙동4가 74-1
☎ 82-0700, 83-0701

사진의 모든 것 최용부 스튜디오

- 베비사진 · 인상사진
- 웨딩사진 · 광고사진
- 최용부(바오로)
이수현(수산나)
- 전주시 중앙동4가 74-1
☎ 82-0700, 83-0701

◆ 병자사목 후원

- 가난한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장례비
- 입원중인 환자들을 위한 사목활동

◆ 나환자 정착촌의 재가환우들의 활동 후원

- 동혜원 -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산 17
- 익산공소 -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 상지원 - 익산군 함열읍 흘산리 209

◆ 일반 후원 사업

- 긴급 재난을 당한 사람들
- 기타 각종 사회복지 사업
- 새로운 복지 사업 전개

사랑의 다리 회원이 되는 길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매월 일정 금액의 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1. 본인 직접 납입 : 가톨릭센터 별관 2층 사회복지회(경우에 따라 본당 사회복지분과에 납입해도 됨)

2. 우편대체 : 400010-31-9036229

천주교 전주교구 사회복지회

3. 은행지로(농·수·축협 포함)

지로번호 7533392

◆ 사랑의 다리 월례마사

가톨릭센터 3층 강당에서 매월 첫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 문의 : 천주교 전주교구 사회복지회

☎ (0652) 84-5290 · FAX 84-4855

남부 커텐

월단 도매 · 가공 · 시공
인타 · 스모크

김형문(대건안드레아)
이장주(신니아)

전주 성원오피스텔 옆
☎ (0652) 85-3131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할 일은, 그 분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 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 제 서 품 을 앞 두 고



김혁태(베드로) 부제

사제서품을 앞두고 나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할까?

먼저,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사람들이 새 삶을 위해서 많은 것을 설계하고 장만하듯이 “신부 나기” 위해서도 준비해야 할 일도 많다. 그래 이것 저것 상의도 하고 계획도 세워보고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성모님께 맡긴다. 그 분이 알아서 제일 좋게 처리해 주실 테니까.

사제서품을 앞두고 나는 두 가지 기도를 바친다. 이것은 부제품을 앞둔 나의 기도였다. 그리고 평생 잊지 않고 드리기로 한 기도이기도 하다.

첫번째 기도는 이렇다. “당신 안에 머물게 하십시오!”

사제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이제 파견되기까지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앞에 똑같은 만큼의 시간 두 토막을 합쳐서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한 느낌이다. 그 길은 내게 사실 많은 경우 어두웠다. 부르심의 길이었지만, 합당치 못한 나의 내면만이 자꾸 나를 맥빠지게 했고 지금까지의 나의 삶과 성향을 결정지은 것으로 보이는 어릴 적 사건들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했다. 늦게사, 그러니까 지난 부제품 전에야 깨달은 것은,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었다. 길고 어두운 마음의 길에서 그 분은 내 곁에 계셨던 것이다. 이제 어떤 어두운 골짜기를 가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 분이 나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그 분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 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실 나의 눈길이 향한 곳은 언제나 나 자신이었다. 스승이신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 자신을 향해 있지 않았다. 언제나 그 분의 눈길은 아버지께로 향해 있었다. 그 분은 늘 아버지의 뜻 안에, 아버지 안에 머무셨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고달픔이나 실망과 좌절이 있더라도,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보람과 행복에서도 나는 그 분에게서 눈길을 떼지 말아야 한다. 그 분이 모든 것의 중심이어야 한다. 당신 안에 머무르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눈길은 늘 아버지께 향해 있었고 동시에 그 분의 손길은 언제나 백성에게로 향해 있었다.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시어 사람들을 하느님의 백성으로 모으고자 했던 예수님의 손길, 사람들을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그럼으로써 그들 가운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분의 손길과 실천을 나도 닮아야 한다. 그 분의 눈길과 손길을 쭉 빼닮아야 한다.

그런데 그 분의 눈길과 손길이 흘러 나오고 하나로 모이게 하는 것은 그 분의 마음이다. 아버지께로 향한 그 눈길의 한없는 신뢰의 마음, 사람들을 향해 내리뻗은 그 손길의 무한히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의 가슴에서 꿈틀대며 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다. 그래서 서품을 앞둔, 아니 평생 바쳐야 할 나의 두 번째 기도는 이렇다.

“당신 마음을 배우게 하십시오!”



1996년 전주교구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에 힘입어 저희 교구에서는 6명의 부제가 사제로, 9명의 신학생이 부제로 서품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함께 하시어 그리스도를 닮은 착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혁구(아우구스띠노)

- 사제 서품자들의 첫미사 일정과 좌우명으로 택한 성구 -

“내 생각과 내 말이 언제나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시편 19,14)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미사 : 2월3일(토) 오전 10시 30분, 연지동 천주교회



최종수(윤호요셉)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루가 4,18)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전생에는 가난 그 자체이셨습니다. 보잘것 없는 저를 부르시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준비시키신 스승 예수님의 전생에는 가난을 포함한 부유함이셨습니다. 모든 가난한 이들 안에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첫미사 : 2월3일(토) 오전 10시 30분, 임실 천주교회



김혁태(베드로)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부르심을 받은 말씀이다. 처음 이 구절과 단락을 대했을 때,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 바로 내가 찾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얼마나 놀랐던지. 변함 없이 부르심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첫미사 : 2월3일(토) 오전 10시 30분, 함열 천주교회

■ 부제서품자 ■

송호석(실베스텔) 조촌동 천주교회 신원철(안토니오) 어양동 천주교회
노해동(라우렌시오) 평화동 천주교회 김시몬(시몬) 금암동 천주교회

가톨릭사회복지법인 작은예수회
기쁜 우리 삼물
사업소 모집
작은예수회 박성구(요셉)신부
지역 : 전주 및 전북 일원
연락처 : 부산시 경남사업소 (051)758-7111~2
〈본사 판매수익금은 장애인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변원구 한의원
변원구(예로니모)
허정자(수산나)
인후동 모래내 다리옆
☎ 252-1783 253-6355~6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委屈 대여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직원 모집
본 라파엘의 집은 시각, 중복 중증장애인 시설로써 이들 장애인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부분 : 보육교사 ○명
• 연락처 : 469-850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산48-8 ☎ (033)83-6637~8

교구소식

- ❖ 사제, 부제 서품식
 - 때 : 2월 2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중앙 성당
 - 주례 : 이병호 주교

 - ❖ 사무장, 사무원 연수
 - 때 : 1월 29일~31일 오후 3시
 - 장소 : 나바위 평정의 집

 - ❖장애인협의회 미사(전주)
 - 때 : 2월 4일(일) 오후 2시
 - 장소 : 둔율동 성당 회의실

 - ❖ 가톨릭 문우회 모임
 - 때 : 2월 3일(토) 오후 3시
 - 장소 :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 ❖ 박성팔 신부 주소
Koreanische Mission
Berliner Str. 470 55131 Mainz,
GERMANY
☎ 001(002)-49-6131-52558

 - ❖ 김영수 신부 주소
Korean catholic center c/o santu
san antonio parish p. o. box 32
forber park, makati, m/m Phil
☎ 001(002)-632-843-8837(8)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수돗물을 깨끗하게 먹으려면 ?

1. 물 속의 유기물과 염소가 반응하여 생성되는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이나 폐놀, 벤젠, 톨루엔과 같은 휘발성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끓여 먹는 것이 좋다. 만약 물을 끓이기 어려운 형편이거나 끓인 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입이 넓은 사기그릇이나 유리그릇에 하루 정도 담아 두면 물 속의 오염 물질이 제거된다.

2. 물을 끓일 때 결명자, 옥수수, 벌리 등을 넣고 끓이면 물 속에 남아

2. 물을 끓일 때 결명자, 옥수수, 보리 둑을 넣고 끓이면 물 솔에 날아

있는 중금속, 화학 물질 등 이물질이
90% 가량 흡착되며 물맛도 좋아진다.
물이 뜨거울 때는 흡착이 잘 일어나지
않으므로 식힌 후 가라앉힌 다음 마
시는 것이 좋다.

3. 차게 해서 마시면 인체에 생리적 활성이 높고 위생 보관을 위해서도 좋다.

4. 인체에 필요한 수분을 '물' 형태로만 흡수하지 말고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자연에서 가장 깨끗이 정화된 물을 마시는 셈이 된다.

대륙 전자식 온돌 판넬

방바닥을 뜯지 않고
당일 깔아서 바로 사용
박 금 옥(요한)
태평동 협액원 앞
☎ 74-3571
(혹) 011-655-2231

컴퓨터 프라이스 마트

특별 판매 기간

컴퓨터 · CD · 프로그램
이 건 이(프란치스코)
평화주공 1단지 입구
☎(0652)231-2237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율전,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 지도 담당
동서 판통로 다가고 입구

김태우(알蛩소) · 황진숙(안절리)

☎ 88-7717~8

동서가구 서부대리점

- 혼수장, 아동장, 개비장
• 원목, 고전기구, 오크, 공예장

이 건 무(요 한)
임 성 숙(카타리나)
효자동 서부시장 전북은행 앞
☎ 222-8384

첫째주일은 사제양성 후원회비를 봉헌하는 날입니다.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범영배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사회복지주일 : 2차헌금 있습니다.
- 예비자 교리시작 : 오늘부터, 지하교리실
 - 일요일반 - 공식미사 후
 - 화요일반 - 저녁미사 후
 - 중·고생반 - 학생미사 후
- 사무장(원) 연수 : 29일~31일, 나바위 피정의집
* 사무실 후무합니다.
- 특별기도 및 성체강복 : 1일(목) 저녁미사 후
- 사제 서품식 : 2일(금), 전 10시, 중앙성당
- 주의 봉헌 축일 : 2일(금), 오후 7시미사
* 1년 동안 가정과 제대에서 쓸 초를 봉헌해 주십시오.
- 모임 : ①천사의 모후Cu. - 오늘, 공식미사 후
②반회장 모임 - 1일, 전 10시30분
③울뜨레야-4일, 공식미사 후
- 금주 청소 : 중노20반, 21반
- 차주 청소 : 중노22, 23반

□ 지난주 봉헌금 : 1,080,970원 □ 교무금 : 1,326,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박상기

- 사회복지주일 : 2차 헌금 있습니다.
- 성탄 영세자 첫고백 : 30일(화) 후 7시
- 성체 강복 : 2월 1일(목) 저녁미사 후
- 서품식 : 2월 2일(금) 전 10시 반, 중앙성당
본당에 계시던 김희태(베드로) 부제님 사제 서품식입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기도해 주십시오.
- 초 축성 : 2월 2일(금) 후 7시 미사
1년 동안 가정과 제대에서 쓸 초를 봉헌해 주십시오.
- 사무장·사무원 연수 : 29일~31일, 나바위 피정의 집
- 청년회 동계동반 : 2월 4일, 모악산, 8시 반 성당에서 모입니다.
(청년회 가입 신청을 바랍니다)
- 초등부 은총시정 : 2월 17일(토) 후 2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참고서, 책, 학용품, 가방 등)을 내주시면 꼭 필요한 사람이 유익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초등부 교리교사 : 김가영, 김미라, 김지영, 김은경, 오정미, 지영석, 이영중·고등부 교리교사 : 정승훈, 서정혜, 유효인영, 이현준, 장상민 10. 차주 모임 : 성우회, 대전회, 사목회
- 축! 결혼 : 2월 4일, 12시, 신랑 - 이종업(베드로), 신부 - 배현숙
- 금주 전례 : 해설 - 죄옥남, 독서 - 안철조 부부,
봉헌 - 오교성 가족
- 차주 전례 : 해설 - 정승훈, 독서 - 장홍덕 부부,
봉헌 - 조운일 가족
- 설당 청소 : 2월 3일(토) 샛별Pr., 다윗의 탑Pr.

□ 지난주 봉헌금 : 732,600원 □ 교무금 : 1,724,0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강덕용

- 오늘은 사회복지주일 : 2차헌금 있습니다.
- 모임 : ①성모회, 자모회 - 공식미사 후
②요셉회, 동정녀들의 모후Cu. - 차주
③사목회 - 2월 3일(토) 7시 30분, 성당
- 사제서품식 : 2월 2일(금) 10시, 중앙성당
- 예비자교리 : 2월 둘째주일(11일)부터 시작 - 한 가정 한 분씩 인도하여 기도하며 도와줍니다.
- 주의 봉헌 축일 초 축성 및 봉헌 : 2월 2일(금) 저녁미사 중 - 한 혜동안 제단에 쓸 초를 봉헌하시다(1개 1천원).
- 지난해 교무금을 서둘러 봉헌하시고 새해 96년도 교무금을 30% 증액하여 세대별로 정성껏 신입, 봉헌합시다.
- 유아 세례 : 2월 4일(일) 오전 9시 -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 성당 청소 : 금주 - 사랑방을 어머니Pr.
차주 - 샛별의 모후Pr.
- 금주 전례 : 해설 - 이춘봉, 독서 - ①남현준 ②송정자
봉헌 - 성대적 가정
- 차주 전례 : 해설 - 죄원규, 독서 - ①이옥동 ②김순희
봉헌 - 이명수 가정

□ 지난주 봉헌금 : 443,110원 □ 교무금 : 658,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루

- 보남 홍보자료 모집 : 전신자를 통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조리하여 「서학동 천주교회 30년사」 발간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 사회복지주일입니다 : 2차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신입 : 96년도 교무금 신입을 하지 않으신 분은 사무실에 교무금 신입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신입바랍니다.
- 초봉헌 : 1년동안 가정과 본당에서 쓰여질 초를 봉헌합시다.
접수 - 사무실
- 독서 및 미사해설자 교육 : 오늘 공식미사 후, 성당
* 독서와 미사해설에 관심있으신 분은 참석바랍니다.
- 초6학년 중·고학생 피정 : 30일(화) 전 9시~5시, 성당, 주제 - "우리의 만남은..." ! *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중·고학생 개학일자 : 2월3일(토)
- 반모임 : 거산황궁 103반~2월 1일(목) 후 8시 103동1408호 정미영(실비아) 자매님댁(83-6802)
- 금주 모임 : 자모회 - 2월 1일(목) 레지오회합 후
- 차주 모임 : ①꾸리아 - 2월 4일(일), 후 2시, 강당
②청년회 - 2월 4일(일), 후 8시, 청년회합실
- 예비자교리 신청 : 예비자 교리 받으실 분이나 통신교리 회망자는 사무실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신청바랍니다.
- 청소 안내 : 금주 - 사도의 모후Pr., 차주 - 정의의 동정녀Pr.
□ 지난주 봉헌금 : 1,782,000원 □ 교무금 : 1,079,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동진
FA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주환

- 금주 : ①사회 복지 주일 - 2차 헌금(금주립으로 죽어가는 기아난민에게 정성을 보냅니다) ②성 마리아 꼬미시움 신년 하례식 - 전 10시30분, 교육관 ③차량 축복식 - 공식미사 후
- 성체강복 및 조례 : 1일, 전 10시
- 성가점회 : 1일, 전 11시 4. 성모성심회 : 1일, 후 3시
- 주의 봉헌 축일 : 초 축성(2월 2일, 새벽 5시30분 미사, 7시 저녁미사 중) * 1년 동안 제대에 쓰여질 초를 봉헌하실 분은 헌금으로 사무실에 봉헌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쓰실 초는 구입하셔서 미사 중에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6. 별자 봉성체 : 2일, 후 2시
- 차주 : ①예수님 석상 전립 축성식, 공식미사 후 예수님 석상 전립 봉헌 - 오행순(안젤라) 2,000만원, 제작 - 방시본 수사 ②재속 글라마 국제제회 - 후 1시30분 ③예의의 모후 꾸리아 - 후 3시 ④O.S.S. 세례회 - 후 6시 ⑤울뜨레야 - 후 8시 8. 95년도 교무금 미납과 96년도 교무금 미신입 세대는 사무실에 신입 바랍니다.
- 성자 권리 위원회 발족(1월 20일) : 회장 - 박순기(요한), 부회장 - 조정웅(베드로) 총무 - 이명행(요셉) 채무 - 김관식(율리오)
- 성가점회 일원 개편 : 회장 - 손옥련(루시아) 부회장 - 김봉자(헬레나) 총무 - 정인주(가타리나) 회계 - 이행님(안젤라)
- 나자렛회 일원 개편 : 회장 - 백순동(데레사) 부회장 - 유향자(베로나카) 총무 - 윤은희(요안나) 서기 - 이순복(루시아)
□ 주일헌금 : 2,366,500원 □ 교무금 : 2,055,0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AX 82-6686 사목회장 강상근

- “마음이 간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 5,3) 사회복지 주일 강론 : 황의숙(파로) 형제
- 축! 사제 부제 서품식 : 2월 2일 전 10시30분 중앙성당, 본당의 노해동 부제님 축하드립니다.
- 성가교실 개강 : 1월 15일~2월 29일까지, 신청 - 사목국 성서사 도직 사무실, 장소 - 유희관, 등록비 - 40,000원, 매주 목요일 오전반 10시~12시, 저녁반 7시~9시
- 주의 봉헌 축일 : 2월 2일 후 7시30분 초 축복. 한 해 동안 제단과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봉헌합시다.
- 성시간 성체 강복 : 2월 1일(목) 후 7시 30분
- 유아세례 : 2월 3일 후 3시 -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 구역 반 미사 : ①30일 - 전 10시, 1~5반 박환우(비오) 대, 83-0772, 후 3시, 1~2반 최세호(비오) 대, 에그란A 다동 309호 ②2월 1일 - 전 10시, 2~6반 안미숙(데레사) 대, 85-1259, 후 3시, 4~1반 김임순(미나) 대, 84-3641
- 형제기도회 : 6구역, 29일 후 8시 30분, 임생빈(율리아노대, 303동 1409호)
- 회의 : ①울뜨레야, 몽승회 - 오늘 공식미사 후 ②꾸리아 - 차주 후 2시 30분 ③성지회 - 차주 공식미사 후
- 사무장(원)연수 : 29일~31일, 나바위 피정의 집
- 자선의 날 : 31일 어머니, 아버지 미사증
- M.E 나눔 모임 : 30일 저녁 8시, 사제관
- 지난주 봉헌금 : 1,753,950원 □ 교무금 : 2,720,000원